

作品論文 / 수상소감

다음은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장장 33일 간에 걸쳐 열린 '82회원건축설계작품순회전시회에 출품한 58개의 작품과 건축사지에 게재된(81년 10월호부터 82년 5월호까지) 논문 중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작품 및 논문부문 수상 회원의 수상소감을 심사위원의 심사평과 함께 옮긴 것이다.

한편 작품 및 논문부문의 수상자를 가리기 위해 본회는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만들고 그 첫번째 모임을 지난 6월 3일에 가졌다.

具琬會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심사위원회의 첫날 모임에서는 작품 및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본선 심사에 따른 채점방법 등을 논의, 6월 8일에 본선심사에 들어갔다.

채점방법은 작품의 경우 대상(A)·최우수상(B)·우수상(C)·장려상(D) 순으로 각 심사위원들이 추천해서 이를 집계한 후 최고득점별로 선정했으며 논문의 경우도 건축사지에 게재된 논문을 심사위원이 선정해서 역시 A·B순으로 각자 추천,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논문을 수상 대상으로 뽑았다.

●심사위원

- 위원장 - 具琬會 (본회 회장)
- 위 원 - 李光魯 (서울대 교수)
- 李廷德 (고려대 교수)
- 李明浩 (중앙대공대 학장)
- 尹道根 (홍익대 교수)
- 金眞一 (한양대 교수)
- 李環會 (연세대 교수)
- 安箕泰 (본회 이사)
- 간 사 - 朴商浩 (본회 이사)

●수상작품 / 논문

- 大 賞 / MBC여의도스튜디오
- 最優秀賞 / 총무공 기념관
- 優秀賞 / 조선인터내셔널 사옥
- 獎勵賞 / 제네랄 호스키털
- 獎勵賞 / 계명대 도서관
- 獎勵賞 / 용인 C씨택
- 獎勵賞 /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
- 優秀賞 / 건축물의 단열시공법
- 獎勵賞 / 도시연립주택 외부공간 구성의 문제점



〈審査評〉

“浪漫的인 표현 많고
傳統樣式의
솔직한 재현에 感銘”

李 光 魯

서울大學校 工科大學 教授



총 58점의 주옥같은 作品들이 금년도 大韓建築士協會 회원작품전에 출품되었다. 본인으로서 심사위원이라는 입장을 떠나 建築家의 一員으로서 출품작품을 대하였으며, 우리나라 建築家들의 작품의 질도 이제 대단한 경지에 도달하였음을 피부로 느껴 진심으로 慶賀함과 동시에 자극받은 바 컸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이번 전시회에 출품되지 않은 좋은 작품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平常行事이고 또 우리나라 建築界의 힘의 表出이라는 데에 축하해 마지 않으면서 출품된 작품에 한해서 심사에 임하였다.

특히 作品들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상당히 낭만적인 表現을 읽을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 建築界에도 Post-Modernism의 흐름이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구나 몇개의 작품이 보여준 傳統樣式의 建築 디자인은 70년대에 유행했던 사이비 傳統主義가 아닌, 우리 고유의 디자인을 솔직히 재현해 주고 있는 데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人賞작을 선정하여 賞을 주어야 한다. 作品을 고른다. 참으로 난감하다. 모든 작품이 하나같이 마음에 든다. 그

러나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나에게 주어진 이상 受賞作品을 고르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 會員 作家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 비단 나쁜만 아니라 審査委員 모두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이번 審査는 심사위원 모두가 정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作品 하나하나를 똑바로 보고 인식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前例없이 有記名으로 하여 소신있는 自己의 선택을 하였다는 것이 이번 심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事務處에서도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원칙에 맞추어 통계를 내어 다수결로 수상작을 가려 냈다는 데에 우리 建築人들은 허심탄회한 自負心을 느낀다.

따라서 非受賞作品이 결코 수상작보다 差와 格에서 뒤떨어 진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심사위원들의 鑑識眼의 차이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會員들이 失笑에 부쳐버리고 배전의 노력을 한다면 82년도 會員建築設計作品展의 의의는 더욱 새로와 지리라 믿는다.

끝으로 이번 大전에 출품치 않은 會員作家들이 내년에는 더 많은 作品을 출품해서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대의 建築大전이 되기를 기원한다.

(수상소감)

“審美的인 면에서의 평가필요”

金正湜
주·정림건축



82년도 建築士協會 회원설계작품 전시회에서 大賞을 받게 된 것은 나 개인의 영광은 물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참여한 우리 사무실의 젊은 建築家들을 비롯하여 인테리어 신현정씨, 諮問役의 배 만실教授, 三信設備,

文電氣, 구조의 馬春景씨, 음향의 최병오씨 등과 MBC 建築本部 팀과의 合奏의 결과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할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 案을 호쾌하게 받아 들인 당시 MBC의 임원진에게도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을 볼 때 예년에 비해 質의 또는 量的으로 상당히 향상된 것을 느끼고 흐뭇했다. 그러나 서울시내이건 지방도시이건 건축물이 서 있는 곳을 보면 自然으로 남아 있는 農村에 비해 보기 싫고 추하다는 느낌은 비단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통된 생각일 것이다. 우리 건축가들이 설계하는 建物들이 都市를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보기 싫고 추하고, 또는 살기에 불편하게 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큰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시한번 우리 建築家의 역할을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이 점에 대하여 우리 건축가의 반성과 분발, 그리고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건축가들의 힘과 노력에 더하여 建築主의 이해와 사회 및 국민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안목을 높이는 데 절대적인 것은 言論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까지 서울에는 수많은 다리(橋)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言論에서는 다리가 완성될 때마다 길이 몇m, 동원된 인원 몇만명, 시멘트 몇몇 포 등, 物量的인 보도만 할 뿐이지 美的인 면에서 언급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다. 또한 大型이건 中·小型이건 건물들이 어서게 되면 연건평·시설 또는 어느 회사가 建設하였다는 物量的인 보도일 뿐 설계한 建築家나, 건물이 주변과 지역과 도시에 미치는 영향과 질에 대해 논하는 것도 별로 보지 못했다. 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審美的인 면에서의 Critic이 없다는 것이다.

美術家가 개인전을 갖는 것은 크게 보도하고 評하면서 사회와 도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建物·都市計劃 등에 대해서만은 유독 잠잠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역시 建築에 대한 국민의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우리 建築家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다. 따라서 綜合藝術家로서의 사회

적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과 책임을 동시에 가져야 하며, 또한 言論은 건축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인식을 국민들에게 提高시켜 건축물에 대한 비평과 채찍질을 철저히 가함으로써 建築家들이 안일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都市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전시회에 TV 보도기관이 동원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되며, 전시회 또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굳게 믿는다.

(수상소감)

“정진을 위한 채찍으로”

張錫雄
아도무건축연구소



우선 賞을 받아 기쁘다.

더 훌륭한 大作들도 많은데 이처럼 큰 賞을 준 것은, 더욱더 정진하라는 선배 審査委員님들의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분발하겠다.

하나의 作品이 완성되기까지 建築士와 建築主, 施工者 사이에 무수한 대화와 끊임없는 설득이 오고가며 그러한 요인들이 創作世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本人의 受賞作은 小品이어서 특별히 남길 애뜻한 사연은 없다. 그러나 大作을 남긴 건축사의 노고와 고충은 무서운 진통이기에 그만큼 위대한 것이며 또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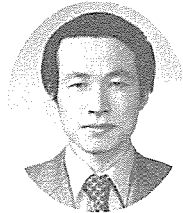
建築士의 책임과 의무가, 바로 국가나 사회에 表出한 산 증거물임을 널리 알려 존경받는 <建築士像>을 정립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는 우리의 行事が 되어지길 기대한다.

우리 建築界에는 무수한 賞行事가 많다. 물론 주어진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 이루어 지겠지만 보다 크고 권위있는 행사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하나로 통합된 행사로 발전될 수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연구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수상소감)

“都市를 美化시키는 나의 言語가 되었으면...”

俞元在
건축연구소 場



산부인과 의사인 나에게 어떤 친구가 자기 아내의 출산을 부탁해 왔다. 믿고 찾아준 고마움과 뜻나기 의사로서의 고민이 교차된다.

산모의 진통이 시작되었다.

왜일일까. 그녀의 진통이 나의 진통 같다. 그리고 아픔은 너무나 길다. 애기도 건강해야겠고, 산모의 고통도 줄여야겠고, 더군다나 산모가 건강해야 될 것이다. 나는 오로지 산모의 건강과 건강한 애기의 탄생만을 기다렸다.

나중에는 애기가 잘생겼다느니 못났다느니, 산모의 건강회복이 무척 빠르다느니 더디다느니, 의사의 처리가 서툴렀다느니, 그렇지 않다느니 말이 많았다. 그러나 내게는 건강한애기와 건강한 산모의 얼굴만이 비춰지길 바랄 뿐이었다. 사실 나는 그랬다. 내가 가진 의로기술만 동원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정성을 쏟았다(친구의 부탁을 잊었는지도 모른다).

오늘의 서울 거리에 조그맣게 자리 잡은 作爲를 보면서 나는 산모의 진통을 생각한다. 주어진 상황을 나의 單語로 나타내는 것은 아픔이요, 기쁨이다. 해산의 기쁨이 나의 어휘를 美化

시킬 수는 없다.

이런 나의 어휘가 도시의 조화를 깨트리지 않고 다른 언어들과 잘 어울려 건강하게 자라기를 빈다.

(수상소감)

“왜 좀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鄭時春
정주건축



부족한 作品을 뽑아주신 분들께 우선 감사드리며, 더 훌륭한 作品들이 아직 숨겨져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그 겸손한 분들께 송구스럽기만 하다.

建築家들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스스로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줄 안다. 따라서 우리의 건축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나아지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建築家들은 다음 建築界를 맡을 후배들에게 땀땀이 보여줄만한 것을 별로 創出해내지 못하고 있어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자책일까? 우리들은 우리의 후배들이 서야 할 터를 다지기 위한 노력을 너무 게을리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나친 사회와의 野合, 쉽게 의지를 굽혀 건축주의 시너처럼 전략하고 마는 풍조, 심지어는 스스로까지 업자연하는 것을 우리 사회의 건축에 대한 인식부족의 탓으로만 돌리고 우리 건축의 역사 탓으로만 발뻠할 수 있는 것일까? 과연 건축가라는 우리는 건축의 本質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와 우리 주위는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리고 아무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문제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명예로운 受賞을 하고서도 웬지 기쁘지 못하고 우울한 것은 이러한 모든 현실문제 때문인가 보다.

과분한 賞.

왜 더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라는 채적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수상소감)

“새로운 마음가짐의 機會로 삼을터”

李鍾寬
한국은성건축기술공사



인간생활의 3대요소 중의 하나인 住生活의 안락함을 추구하게 된 熱에너지.....

이는 역시 73년의 에너지 파동 이후 여러 단계에 걸쳐 실험·조사연구를 통해 건물에너지 소비에 대한 규제를 태동시켰다. 78년, 본인과 한양공대 오창희教授, 서울공대 이 건教授 등은 건축사협회를 통하여 처음으로 生活패턴의 변천과 쾌적한 <온열환경>의 조성을 추구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협회 아닌 타부서에 이 역사적인 연구사업을 빼앗기고만 셈이다.

아픈 몸에 정혈제를 주사놓아 가면서 쓴 원고를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 실고 난 후 建築士誌에 다시 연재한 것이 우수상이라니.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협회사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아울러 熱에너지에 대한 공부와 연구를 더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아름다운 都市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責任”

鄭 求 殷
삼예종합건축



우리 建築士들의 손에 의해 꾸며지고 있는 都市의 주거환경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어지고 또 어떻게 성장되어져 갈 것인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이 우연찮게 協會에서 賞이라는 영광을 안겨주어 대단히 기쁘다. 나 외에 더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신 선배님들께 송구스러울 뿐이며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복잡한 모순 속에서 建築士라는 직업을 갖고 건축물을 설계해 오면서 우리는 많은 타협, 승리, 그리고 많은 좌절을 겪으며 都市를 아끼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이같은 노력이 物質萬能의 개인적인 이익의 충족에 갇혀서 무력해 진다면 都市는 더없이 황폐해지고 주거환경은 보잘 것 없는 곳으로 전락될 것은 뻔한 사실이다. 우리는 이 都市를 보다 아름답게 가꿔 후손들에게 넘겨 줄 책임을 갖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인고의 노력으로 이 시련을 이겨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끝으로 協會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투를 빈다.

建築士 현황

금년도 특별전형 100명 합격

건설부는 지난 1 일, 82년도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자 69명과 특별전형시험 합격자 100명 등, 모두 169명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로서 82년 7월 현재 전국의 건축사 수는 3,127명에서 3,296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본회소속 회원으로 등록된 인원은 1,953명, 비회원은 1,343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국의 건축사 현황은 <표 1>과 같다.

한편 78년도부터 실시된 특별전형 시험은 2급건축사 면허소지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주어왔는데 2급면허소지자 1,822명 중, 82년도 특별전형시험 합격자 100명을 포함한 951명이 사고자(사망·승급·말소)로 처리되어 현재는 871명이 2급건축사로 남아 있

다. 또한 2급건축사 871명 중 본회 회원이 503명, 나머지는 비회원이다.

여기에서 82년도 특별전형시험 합격자를 시·도별과 학력·경력·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82년도 특별전형 합격자 중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전체의 60%로 가장 많고 다음이 고졸로서 27%, 전문대 8%, 무학 5%의 순으로 중졸과 국졸은 단 1명도 없다.

경력면에서는 11—15년이 48%로 가장 높은 합격율을 보이고 있으며 20년 이상은 3%에 그치고 있다.

연령별을 보면 41—45세가 3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6—40세의 37%, 51세 이상은 2%로 저조한 합격율을 보이고 있다. (*)

<표 1>

구분	구분	총면허발급자	사 고 자 (사망·승급·말소)	현재원	회 원	비회원
구분	구분	총면허발급자	사 고 자 (사망·승급·말소)	현재원	회 원	비회원
건축사		2,466	41	2,425	1,450	975
2급 건축사 (특별전형)		1,822	951	871	503	368
계		4,288	992	3,296	1,953	1,343

<표 2>

시도별	구분	응 시 자		합 격 자		
		응 시 자	합 격 자	응 시 자	합 격 자	
서울		156 (95)	31 (10)	충 남	29 (26)	7 (5)
부산		36 (32)	13 (12)	전 북	14 (13)	2 (1)
대구		44 (36)	18 (15)	전 남	36 (31)	10 (10)
인천		7 (7)	1 (1)	경 북	15 (14)	3 (2)
경기		22 (22)	5 (8)	경 남	25 (25)	6 (6)
강원		3 (3)	0 (0)	제 주	1 (1)	0 (0)
충북		8 (8)	4 (3)	계	396 (313)	100 (73)

<표 3>

() : 본회 회원

학력별	대졸이상	전문대졸	고 졸	중 졸	국 졸	무 학	계
	60	8	27			5	100
경력별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20년이상		
	3	30	48	16	3		100
연령별	31—35세	36—40세	41—45세	46—50세	51세이상		
	17	37	38	6	2		100